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The Committee for New Health Technology)는 2006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로서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 회사 등이 신청한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경우 그 기술이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심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 도입되거나 개발된 모든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 받아야 우리나라의 의료시장과 병·의원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될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된 기술의 의학적 타당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약 250명의 위원이 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청된 신의료기술은 556건인데 이 중 239개의 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평가가 완료된 기술이 219건이며 20건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은 ‘팔 이식술’ 등을 포함한 166개 기술이다.

신의료기술의 평가는 크게 신청, 평가 및 공표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신청단계는 신청자로부터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시점에 있는 신의료기술의 신청을 받아 주로 문헌적 자료조사를 통해 신의료기술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평가는 위원회에서 하며, 공표는 신의료기술위원회에서 보고한 권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며, 평가보고서는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연구와 지원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업무가 짧은 기간 내에 제 모습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심사평가원 임직원, 특히 연구원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이번 호에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절차 개선’을 주제로 개최한 심평포럼의 토의내용을 수록하게 되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앞으로 평가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감사한 마음과 축하를 드린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국제협력을 통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우리나라보다 평가업무를 먼저 시작한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세계신의료기술평가협회(International Network of Agencies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AHTA)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도에 국제의료기술평가학술대회(International 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의료기술의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 물론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통해 의료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현존기술과 신의료기술 중 어떤 기술이 더 효과적이냐를 판단하여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자율적 판단 하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을 채택하도록 도와주고 나아가 근거중심의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장
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엄영진**